

일제강점기 전통 지식인의 이중 언어 글쓰기

국학자 정인보의 한글 글쓰기와
한문 글쓰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희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국문학(한문학) 전공
dpedre@hanmail.net

- I. 머리말
- II. 민족주체성 확립과 문자의 문제
- III. 이중 언어 글쓰기 양상과 의미
- IV. 맺음말

I. 머리말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언어 담론과 글쓰기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 때이다. 이전 시기와 다른 가장 큰 변화는 한글과 한문 간의 위상 변화가 일어나 한글이 국문을 대표하게 되고 한자가 타자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어에 대한 인식이 통일적인 것도, 국어의 형태나 지위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한글·한자 논쟁은 한동안 계속되었으며, 글쓰기에서도 한글체·한문체·국한문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일제강점기 후기에 이르러서는 식민지 억압 정책이 언어에까지 미쳐 한글이 국문의 공식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언어 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본어 및 일본어 글쓰기는 언어생활에 깊이 침투되었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다언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계층, 경험, 세계관 등에 따라 글 쓰는 주체들이 선택한 문자와 문체는 달랐고, 동일한 주체의 경우에도 시기, 상황, 목적 등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자와 글쓰기가 어떻게 분할 배치되고, 혼종·착종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¹⁾

이 글에서는 그러한 탐색의 일환으로 전통 지식인이자 국학자로서 한문(漢文) 문언문(文言文)과 한글 글쓰기를 병행했던 위당 정인보의 언어 인식과 글쓰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정인보에 관해서는 철학·역사학·문학의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문학의 경우 초기에는 시조 연구에 집중되었다가²⁾ 최근에는 한문 작품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

1)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의 다층적 언어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문과 국문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어 글쓰기와 한국어 글쓰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구한말의 다층적 언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는 황호덕의 『근대 내이션과 그 표상들』(소명출판, 2005)이, 개화기의 경우 임상석의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지식산업사, 2008)이 참고할 만하다. 이 외에도 권보드래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2010), 이상현의 「고전어와 근대어의 분기 그리고 불가능한 대화의 지점들」(『코기토』 제73집, 2013), 서민정의 「문화 복수성의 관점에서 읽는 식민지의 언어」(『코기토』 제76집, 2014) 등이 다언어(또는 복수 언어)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의 언어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다.

2) 오동춘, 「위당 정인보 시조 연구-「담원 시조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5집(1987); 이동영, 「정인보의 생애와 문학업적」, 『陶南學報』 제17집(1998); 오동춘, 「爲

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³⁾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국문 또는 근대 문학의 성립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한문 문언문은 시대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연구 대상에서 도외시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학 소양과 글쓰기 문화가 여전히 지식인들의 지적·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를 배제하고는 그 시대의 온전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시기는 정인보처럼 근대적 한글 글쓰기와 전통적인 한문 문언문 쓰기를 병행한 지식인들도 다수 존재했다. 이처럼 이중 언어 글쓰기를 병행한 경우, 상호 관계를 살펴볼 때 각 글쓰기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이에 정인보의 이중 언어 글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체적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정인보는 한글과 한문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한글 글쓰기와 한문 문언문 쓰기의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글 글쓰기에 보이는 문체 실험의 양상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소수의 전유물로 주변화되었던 한문 문언문 쓰기를 지속한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II. 민족주체성 확립과 문자의 문제

오늘날 '한글'을 '국문'으로 여기는 인식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상 '국문'이라는 개념이 법적·사전적으로 인준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의 일이다.⁴⁾ 그 이전에는 한자는 진서(眞書)로, 한글은 언문(諺文)으로 불렸

堂時調 研究-慈母思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김학성, 「담원 鄭仁普 시조의 정서 세계와 그 정체성」, 『泮矯語文研究』 제13집(2001).

3) 한시에 관한 연구로는 김학성의 「위당 정인보의 시가문학-한시문학을 중심으로」(『애산학보』 제39집, 2013)가 있고, 한문 산문에 관한 연구로는 안장리의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장르변형 글쓰기-정인보의 『당릉군유사정』」(『동방학지』 제130집, 2005), 유권석의 「『담원문록』 소재 인물전 연구」(『溫知論叢』 제16집, 2007), 김영봉의 「爲堂 鄭寅普의 墓道文字에 나타난 시대의식」(『동방학지』 제141집, 2008)이 있다. 그 외에 정인보의 한문학 관련 연구로는 김진균의 「성호 이익을 바라보는 한문학 근대의 두 시선-1929년 문광서립관 『성호사설』에 게재된 변영만과 정인보의 서문 비교 연구」(『泮矯語文研究』 제28집, 2010), 「『육서심원(六書尋源)』에 대한 근대한문학계의 평가와 그 의미」(『民族文化論叢』 제47집, 2011), 「정인보 조선학의 한학적 기반」(『한국실학연구』 제25집, 2013)이 있고, 한영규의 「위당 정인보의 선시(選詩) 의식-동아일보 “금고시총(今古詩叢)”란을 중심으로」(『漢文學報』 제22집, 2010), 「근대 신문 현상한시 考選者의 비평의식」(『국제어문』 제55집, 2012) 등이 있다.

다가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언문이 국문으로, 진서는 한문으로 불리게 되었다.⁵⁾ 한글은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국문의 지위를 당당히 확보하게 되었고, 한문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점에서 타자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주의가 흥기한 근대전환기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고, 언문일치는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한글·한자에 관한 관심과 논쟁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특히 정인보가 신문·잡지에 글을 활발하게 기고할 무렵인 1920-1930년대에는 한글의 가치가 주목되고, 한자 제한 및 폐지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다.

그렇다면 그는 한글과 한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1. 한글에 대한 인식-겨레의 소리를 표기한 진정한 문자

정인보의 언어관과 한글에 대한 인식은 『영인본 훈민정음』에 쓴 서문에 잘 드러난다.

대체로 사람이란 나면서부터 마음에 얹이 있어, 사물에 접하여 느끼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바야흐로 움직일 때에는 속에서 물결치고 메아리쳐서 이어 소리가 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니, 언어란 이것일 따름이다. [...] 풍속이 다르면 소리가 나타내는 바가 구별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구역 안에서 같은 끼리는 소리가 발하면 서로가 알게 된다. 이래서 지구상의 인류는 말로써 겨레가 되므로 같은 성음을 빌릴 수가 없음이 이와 같다. 그러므로 문자를 만들 때는 성음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심지어 중국의 六書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사물에 치달아가지만, 흐름을 따라 근원을 찾자면 다 소리가 도맡는 것이다. 이렇지 않고서는 문자와 언어가 갈려, 그 느낀 바를 담아서 영원히 통하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28자란 소리에 맞아 널리 쓰이어, 그 참(眞)을 곡진하게 다하는 것이다.⁶⁾

4) 이에 대해서는 황호덕의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그는 이 시기 발행된 사전과 저술 등을 검토하여 1880년에 『한불자전』 속에는 ‘국어’ 혹은 ‘국문’의 개념은 표제어로조차 정립되지 않았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국문’이라는 개념이 법적·사전적으로 인준되고, 1897년 이후에 나온 『한영자전』에 이르러 비로소 ‘국문 = The National Character-Ūnmun’이라는 정의가 등장함을 밝혔다. 황호덕, 앞의 책, 37쪽.

5) 황현 저,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상(문학과지성사, 2005), 424쪽[갑오년(1894) 고종 31년(청 광서 20년, 일본 명치 27년)], 12월 기사 중].

6) 정인보, 『『영인본 훈민정음』 서(影印 訓民正音序)』, 『담원문록』 상(태학사, 2006), 235-238쪽.

이 글에서 정인보는 한마디로 음성 언어를 중시하는 언어관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언어란 인간이 사물과 접할 때 지각(知覺)되는 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이다. 그 소리는 지역의 풍속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구역에 사는 사람끼리는 통하기에 같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겨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음성 언어는 자민족과 타민족을 구별 짓는 요소이고, 타민족으로부터 빌릴 수 없는 민족 고유의 것이라고 본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육서(六書), 즉 한자의 형성 원리인 상형·회의·형성·지사·가차·전주도 그 근원은 소리에 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⁷⁾ 이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관계에서 음성 언어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참된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한글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참된 문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한자 또한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중국 민족의 음성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되므로 타자화되는 것이다.

2. 한문에 대한 인식-타자화와 국문 범주로의 재배치

그러나 한자를 민족 언어에서 단순하게 배제시켜버릴 수는 없는 문제였

7) 한자의 형성의 근본 원리가 ‘소리’에 있다고 본 점은 정인보가 청대 고증학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안목을 갖추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정인보는 「十字廣詁」라는 글에서 ‘十字’의 字義를 훈고하면서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를 인용한 뒤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담원 정인보전집』 2,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346-348쪽 참조. 이하 ‘『전집』’으로 표시). 朱駿聲의 이 책은 청대 고증학이 소리와 음운을 매우 중시하여 연구하였던 古音學 분야 연구의 절정으로, 『설문해자』의 540部首를 채택하지 않고 古韻 18部를 다시 배열한 것으로서 청대 고증학이 음운과 소리 중심이 대세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청대의 음운 중심적 고증학 학풍에 대해서는 濮之珍 저, 김현철 등 역, 『중국언어학사』(신아사, 1997)의 ‘제5장 청대의 언어연구’ 참조). 정인보는 이러한 청대 고증학의 성과를 이미 흡수·소화하고 있었으며, 조선의 훈민정음 창제가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음성과 음운에 대한 깊은 연구를 기반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게다가 정인보는 권병훈이 『설문해자』를 토대로 하면서도 六書에 기초한 독자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한자의 자형과 의미, 음운을 분석한 『六書尋源』을 중화민국 초기의 국학자이자 『설문해자』 연구의 대가인 章太炎의 『文始』와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극찬함으로써 음운학과 음성 언어의 관계성에 대해 일가견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전집』 2, 372쪽). 정인보의 음운학과 훈고학 연구, 그리고 청대 고증학과 및 章太炎 학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지면을 기약하고자 한다.

다. 한자는 근대 이전에 지식인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문자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우리의 언어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화되어 있던 한글이 국문으로 부상되자 한자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 주요 쟁점의 하나가 한문과 우리 문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과거 문화유산의 정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 제한 및 폐지 등 어문 정책과 관련된 문제였다.

정인보는 전통 선비의 정체성을 지니고 전통 학문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한자에 대한 생각이 근대 이전의 선비와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역사학자이자 국학자로서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평가하였고, 이는 언어문자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① 『隋書』東夷新羅에 이른바 “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이라고 한 것이 비록 훨씬 以後의 記述이지만 자기네의 固有한 것은 어디까지나 變하지 아니하는 그들로서 同祖의 二國과 相同함이 初代에 已然하였을 것이 無論이요 辰韓古族이니만큼 先代로 말하면 漢民族과 接觸이 잦아서 言語，文字의 慣知함이 있었으려면 排漢心이 강한 그네들은 漢人의 언어문자는 手寫와 口傳을 아울러 呵止하도록 憎惡하던 것이라. 이리하여 얼마를 지나매 影響도 남지 아니하였으되 自己네의 固有한 것에 對하여는 죽어라 하고 世傳하였던지라 古言이 그대로 내려오매……. 8)

② 漢化에 傾心한 拘儒輩은 朝鮮의 古俗으로도 그 本貌 | 있는 것은 나쁘게 여겨 三國史記부터 赫居世를 中國의 外裔라 하여 가지고 借重코자 하고 朝鮮의 古語는 夷言이라 하여 考例하기를 羞恥스럽게 알았다. 9)

①은 『조선사연구』의 일부인데, 그는 중국 문헌 등을 참조하여 신라의 풍속·제도·의복·언어 등이 고구려·백제와 유사하고 중국과는 달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신라에 고언(古言)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신라가 진한(辰韓)의 후손으로서 이미 선대(先代)에 한족(漢族)과 접촉이 빈번했고 언어문자 면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자기 고유의 것을 고수하며 한족의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인보가 고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와 고유문화의 존속 때문이었다.

반면 ②에서와 같이 『삼국사기』를 서술했던 김부식으로부터 우리의

8) 정인보, 『조선사연구』 상(『전집』 3), 267쪽.

9) 위의 책, 42쪽.

선조를 중국의 혈통과 연관 지음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며 한다거나 고어(古語)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김부식과 같은 이들을 ‘구유배(拘儒輩)’, 즉 유교에 얽매인 자들이라며 부정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유교를 숭상하였던 고려의 일부 사대부와 조선의 대다수 사대부들이 중국을 추종하는 사대주의 사고에 빠져 우리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잃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 속에서 그는 한자 중심으로 치달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옛 고유어가 남아 있는 흔적을 추적하거나, 조선 후기에 일었던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의 역사를 밝히고 그 계통을 수립해가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한자로 씌어진 유산을 배제하거나 한자를 완전히 타자화 하지도 않았다. 오랜 역사 동안 한자로 언어생활을 영위해온 만큼 우리의 한자 문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前人の述作이 吏讀나 正音을 쓴 以外는 大개 漢土의 文字로써 그대로 驅使한 것이므로 純粹한 朝鮮文의 領域이 잘못되게 狹小한 듯하나 朝鮮의 芬香이 없이 오직 漢土의 氣臭를 含有한 作品은 애초에 말할 것이 아니요, 어떠한 말(馬)을 탔던지 東西南北에 내 맘대로 馳騁하였다 할 것 같으면 구태여 過去의 驪黃을 물어 무엇하리오? 이를 알아 누구나 範圍를 局促케 하지 아니할 것이다.¹⁰⁾

이 글에서 보듯이 정인보는 한자나 한글이나 하는 문자 자체를 과거 조선 문학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기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문자는 물건을 신는 ‘말(馬)’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실어 나르는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분향(芬香)’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조선의 분향이란 사상과 감정이라는 내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음률, 어조 등의 형식적인 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의 분향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한문학이든 한글 문학이든 상관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조선적 특징을 담고 있다면 그 한자가 곧 우리의 문자라고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¹¹⁾ 다만 중국의 것을 그저

10) 정인보, 「조선문학원류초본(朝鮮文學源流草本)」, 『전집』 1, 261쪽.

11) “漢土의 文化 | 더디 이르니만큼 草昧의 開創으로서 國風이 내대로 成長하여 漢化 | 들어온 뒤에도 朝家의 崇奉은 何如하였던지 舊型이 원체 두터운지라 漢文을 써도 自性이 그대로 드러나 六朝綺麗의 調를 西京古樸의 質로써 運行함이 漢字 그대로 羅文이라 할 수 있다.” 정인보, 「조선문학원류초본」, 『전집』 1, 296쪽.

모방한 한문학 작품은 함량미달이므로 논의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한문학과 조선 문학의 관계에 대한 설정은 1920-1930년대에 문학 연구자들 간의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였다. 조운제에 따르면 이에 대해 소극론자, 적극론자, 절충론자의 세 가지 입장이 있었다.¹²⁾ 소극론자는 한문학은 조선의 문자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조선 문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적극론자는 과거의 한문학은 곧 조선 문학에 포함된다 고 보았다. 절충론은 조운제가 주장한 것으로, 한문학 작품 가운데에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을 잘 담은 것은 국문학에 포함시키되 조선 문학과 한문학을 엄격히 구별하여 적서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보면 정인보는 한문학도 조선 문학이라고 본 적극론자에 해당된다. 다만 중국의 것을 모방하기만 하여 조선의 고유성을 담고 있지 못한 한문학 작품을 배제한다는 점은 절충론의 입장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¹³⁾

3. 고유 문자 추적-문명 국가로서의 정체성 확보

정인보는 한자와 한글뿐만 아니라 옛 고유 문자에 대한 추적에도 관심이 높았다.

- ① 무릇 述作과 記籍에 對하여 가장 切實인 問題는 文字인즉, 留記니 書記니 하는 冊을 무슨 文字로 썼으며, 律令을 어떻게 頒布하였으며, 曆書부터 적은 바 어떤 文字이었던가? 文化의 程度가 진작부터 鹵莽치 아니하였음을 미루어 보아 이에 伴할 만한 文字ㅣ 早創하였을 것은 決코 의심 없는 바인데 [...]

12) 조운제, 「조선문학과 한문과의 관계」(1)-(13), 《동아일보》 1929년 2월 10-23일자.

13) 김진균은 「조선문학원류초본(朝鮮文學源流草本)」의 “어떠한 말(馬)을 탔던지 東西南北에 내 맘대로 馳騁하였다 할 것 같으면”이라는 대목에서 ‘내 맘대로’를 ‘우리말의 내려가는 걸’이라는 것과 연관 지어 정인보가 삼국시대의 한문학 중에서 조선 문학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조선어의 특질에서 멀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고 파악하였다 (『조선문학원류초본(朝鮮文學源流草本)』을 통해 본 정인보의 ‘조선 문학’ 구상, 『반교어문연구』 제39집, 2015, 44-45쪽). 그러나 정인보는 조선 문학에 포함되는 한문학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로 ‘조선의 분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선의 분향’이 조선어의 특질을 간직하는 것만으로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인보를 조운제의 구분에 따른 적극론적 입장과 절충론의 입장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정인보가 조선어의 특질을 간직하는 한문학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이 면에서 김태준·조운제와 다르다고 파악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위의 논문, 45쪽).

漢土史籍의 泛記함을 보건대, (1) 『梁書』 諸夷傳 新羅條에 “無文字, 刻木爲信”이라 한 것이 있으니 그 書例에 依하면 新羅以外 麗濟二國에는 이 말이 없는 것이 文字가 없지 아니함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이른바 無文字는 곧 漢字를 가리킨 것이요 이쪽의 固有文字가 없음을 말한 것이 아니니 차라리 “刻木爲信”이라는 것이 固有文字의 一端을 어렵듯하게나마 비춘 것이다.¹⁴⁾

- ② 그러나 “始用文字”라는 文字 | 어떠한 文字임은 자못 의심되는 바이니, [...] 東明時에 松讓을 封하여 多勿侯라 하였으니 多勿은 麗語의 復土, 卽 땅 무른다는 말이라, 多는 ㅅ의 硬音 붙이지 아니한 것이요 勿은 “무르”의 ㅁ한 것일지는 復土侯를 반드시 多勿侯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곧 語文의 一致되던 것을 引證할 수 있다.¹⁵⁾

그가 주목한 것은 실물로는 전하지 않고 옛 문헌에서 제목만 언급되는 고대시대의 저술들이다. 이러한 방대한 서적은 발달된 문명국가임을 보여주는 증표이기에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고대시대에 이러한 저술들이 한자가 아닌 고유문자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중국 문헌인 『양서(梁書)』 신라조(新羅條)에 “無文字, 刻木爲信”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無文字’는 한자가 없었음을, ‘刻木爲信’은 한자가 아닌 고유문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고유문자는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한 문자여서 어문일치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②에서 제시한 ‘多勿侯’라는 말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그가 제기했던 어문일치를 이룬 고유문자설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가설의 제기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민족의 고유문자와 어문일치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고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자취를 찾아 자주적 문명국가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언어문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실제 글쓰기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

14) 정인보, 『조선사연구』 하(『전집』 4), 231쪽.

15) 정인보, 『조선문학원류초본』, 『전집』 1, 268쪽.

Ⅲ. 이중 언어 글쓰기 양상과 의미

구체적으로 정인보의 한문 글쓰기와 한글 글쓰기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글 글쓰기로는 시조·기행문 등과 같은 문예적 글쓰기와 조선사연구, 양명학연론, 문학원론 등의 학술적 글쓰기가 있고, 한문 글쓰기로는 비문, 애사, 제문, 간찰 등의 한문 산문과 한시가 있다. 한글 글쓰기는 모두 신문·잡지에 연재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한문 글쓰기는 간찰을 제외하고는 문집에 수록되거나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1. 근대 매체를 통한 한글 글쓰기의 다양한 시도

1) 전통 문예 양식의 재생

문예적 갈래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전통 양식의 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서 단연 주목할 만한 것은 시조 창작이다. 그는 근대적 의미의 작가라기보다는 문학·역사·철학을 아우르면서 한문 산문과 한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정감을 표현하였던 전통적인 문사에 걸맞았다. 그런 그가 시조 창작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26년의 일이다. 그해 한글 반포 팔회갑(八回甲, 480년)을 기념하여 ‘가가날(한글날)’을 정하게 되었고, 이 무렵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정인보도 이해에 처음으로 시조를 지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1920년대에 이르러 시조가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시가 양식으로 주목되어 근대 문학의 한 양식으로 재탄생된 데에는 최남선의 공헌이 크다.¹⁶⁾ 그가 첫 시조집 『백팔번뇌』를 발간했을 때 정인보를 비롯하여 이광수, 홍명희, 박한영 스님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문인·지식인들이 발문을 썼다. 이들 중에서도 정인보는 시조 짓는 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발문에서 자신이 최남선과

16) “時調를 國文學 중에 중요한 것으로 소개한 이가 六堂이요, 그 형식을 취하여 새 생각을 가지고 時調를 처음 지은 이도 六堂이다.” 이광수, 『『百八煩惱』 서문』(1926), 『육당최남선전집』 5(동방문화사, 2008), 469쪽.

가까이 살 때 시조 짓는 법을 여러 차례 물었다고 언급하며, 시조 형식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홍명희가 시의 형식 면에서 시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¹⁷⁾, 정인보는 시조가 우리말로 우리의 정감을 표현한 노래 양식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창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조가 1920년대 근대 문학의 한 형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최남선의 『백팔번뇌』 중 “時調를 한 文字遊戲의 구렁에서 건져내어서 엄숙한 思想의 一 容器를 만들어보려고”¹⁸⁾ 했다는 말에서 보듯이 내용의 깊이를 더해 문학적 위상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이에 최남선은 시조에 자신이 추구했던 ‘조선적인 것’의 내용을 담고자 고심했고, 이로써 시조는 언어유희를 넘어서 신문학(新文學)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¹⁹⁾ 다만 진지한 사상을 담고자 한 까닭에 최남선의 시는 난해해졌고 일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인보는 난해함은 고뇌의 결과이고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남선의 시조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²⁰⁾ 그리고 정인보 또한 전통적 소재와 정감을 바탕으로 시조에 시대정신과 민족주의 사상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우리말로 불려온 시가 양식에 대한 정인보의 관심은 시조에 그치지 않고 가사, 경기체가 등으로 확대되어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철의 〈속미인곡〉을 본받아 지은 작품이다.²¹⁾ 정철은 정인보가 조선 500년을 통틀어 우리나라 가곡(歌曲)에 특출한 명인(名人)으로 꼽았던 사람이고²²⁾, 특히 정철이 시가(詩歌)에서 보여준 우리말 구사력에 대해 매우 감탄을 했다. 한자어 대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말 의성어·의태어 등을 맛깔나게 사용한 점이나, 한자어나 전고(典故)를 일부 사용하면서도 “우리의 곁에 맞추어 몇거리 나게 써놓은 것”²³⁾이 놀랍다는 것이다.

17) “時調라는 朝鮮固有詩形을 다시 살리다시피 한 것이 말하자면 六堂의 노력이다. 六堂은 時調를 우리의 것이라 하여 매우 崇尚하나 詩形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崇尚할 價値가 있을 것이 아니다.” 홍명희, 『『百八煩惱』 발문』(1926), 『육당최남선전집』 5(동방문화사, 2008), 468쪽.

18) 최남선, 『『百八煩惱』 서문』(1926), 『육당최남선전집』 5(동방문화사, 2008), 445쪽.

19) 이광수, 앞의 글, 469쪽.

20) 정인보, 『『百八煩惱』 批評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7년 3월 1-3일자; 『전집』 2, 333-334쪽.

21) 『관동해산록』의 ‘사선교에서’ 편에 수록되어 있다. 『전집』 1, 136-137쪽.

22) 정인보, 『국학인물론』, 『전집』 2, 55쪽.

〈속미인곡〉은 정철의 가사 중에서도 전고(典故)와 한자 어구가 적어 우리말의 묘미를 가장 잘 살렸다고 평가받는 작품이다. 정인보가 〈속미인곡〉의 형식을 본받아 창작을 시도한 것도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정인보는 한글 시의 형식을 시조, 가사 등의 전통 문학에서 찾았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쓴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자신의 한글 시 쓰기에 활용하였다. 단 내용은 그 시대에 맞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사상)을 담는 방식으로 변모를 꾀했다. 그는 양주동의 『향가증석』에 서문을 써주면서 “옛 뜻은 현재에서 읽어야 하고, 우리 감정은 우리 글로 써야만 편안하니 천 년 전이라 해서 어찌 반드시 다를 것인가”²⁴⁾라고 읊은 바 있는데, 그의 한글 시 쓰기가 바로 이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실천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정인보가 한글 글쓰기에서 참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양식은 우리말로 읊은 전통 시가 양식뿐만이 아니다. 시조 짓는 법을 터득하기가 어려워 한문 문장 쓰는 방법으로 헤아려보았다고 고백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²⁵⁾, 그는 한글 글쓰기보다는 한문 문장 쓰기가 더 익숙했다. 그렇기에 한글 글쓰기를 시도할 때 한문 문체를 주요하게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해산록」²⁶⁾이다. 「관동해산록」은 두 달 동안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이다. 주목할 점은 ‘관동해산록’이라는 제목을 명명하는 방식이나 글의 구성이 전통적인 한문 문체인 유기(遊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의 기본 특징은 사실적인 내용과 감상 및 견해를 아우른다는 점이다. 중국 산수 유기의 원조는 『수경주(水經注)』라는 지리서였고, 역대의 유기 작품은 모두 산수·지명·고적·관련 역사인물 및 사건에 대한 정확한 탐구와 고증을 중시하였다.²⁷⁾ 이와 같이 유기는 해당 장소의 지리와 역사에 관한 풍부한 사실을 전해주는 일종의 역사지리서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작가의 주관적 안목과 감상을 바탕으로 한 경물 묘사,

23) 정인보, 「국학인물론」, 『전집』 2, 60-61쪽.

24) 정인보, 「양주동 『향가증석』 책머리에」, 『담원문록』 중(태학사, 2006), 422쪽.

25) 정인보, 「『百八煩惱』 발문」(1926), 『육당최남선전집』 5(동방문화사, 2008), 470-471쪽.

26) 정인보, 『전집』 1, 101-157쪽.

27) 진필상 저,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이회문화사, 2001), 125쪽 참조.

의견과 감정의 서술이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또한 작가의 감정은 시로 표현하기도 하여 운문과 산문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유기는 사실의 객관적 기록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문체이기도 하다.

「관동해산록」은 사실성과 서정성의 결합, 산문과 운문의 복합적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글의 서두인 ‘총서’에서는 봉우리 지형, 물길 지형 등을 상세히 서술하여 지리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정확한 탐구와 고증을 통하여 바로잡는 역사 연구서의 성격도 보인다. 선인의 자취가 어린 곳에서는 고인과 가상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워하는 정서를 시로 읊는 등 곳곳에서 자신의 감흥을 시로 읊어 삽입하고 있다. 즉, 정인보의 「관동해산록」은 근대 신문매체에 연재한 한글 기사문이지만, 그 문체는 전통 한문 문체인 유기를 따르고 있어 문체 면에서 보면 한문 문언문의 한글 번역본인 셈인 것이다.

그러나 「관동해산록」이 전통적인 유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 형식상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서정을 한시 대신 시조로 읊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는 「관동해산록」이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일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연재한 기사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시조를 조선 고유의 시가 형식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되살리기 위해 애쓴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점은 금강산 여행에 함께 동반한 이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금강산 여행은 스승인 이견방, 벗 이희중, 박한영 스님과 함께하였는데, 이들이 옛 방식대로 한시를 서로 주고받는 자리에서 그들과 달리 정인보는 시조를 지었다.²⁸⁾ 정인보를 포함해 이들은 모두 한학적 소양이 몸에 밴 전통 지식인들이었고, 한시를 짓고 서로 화답하고 품평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였다. 그런데 정인보는 이러한 자리에서 시조로써 화답했던 것이다. 최남선은 “시조로 표현 못 할 것은 없소”라고 말했는데²⁹⁾, 정인보 또한 시조로써 충분히 개인의 감흥과 사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여겼기에 의도적으로

28) 정인보, 「관동해산록」, 『전집』 1, 139쪽.

29) 이광수, 『『百八煩惱』 발문』(1926), 『육당 최남선전집』 5 (동방문화사, 2008), 468-470쪽.

이러한 글쓰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학술 논문 쓰기의 강조와 전통적인 공부의 연계

정인보는 시조, 기행문 등 문예적인 성격의 한글 글쓰기도 많이 시도했지만, 그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던 주요 영역의 하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논문 쓰기를 중시했던 것은 1924년에 발표한 「문장강화(文章講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事物의 原委를 窮蹙하여 美麗함보다 明白함이 더하고 高雅함보다 暢達함이 지나는 論說의 文字가 藝術上見地로는 或 滿足키어려움이 있다할지나 그의功用이 차로 빛나는곳이 있나니 群疑 袞衿대, 이를 窅코 힘으들대 읊스며 衆志를 定할새, 이를 窅코 터를 잡을대읍나니라.

文章으로 써 時代에 裨益을 圖할진대, 現今 우리 에게는 論文을 攻究함이 가장 急務라 하노라. 極度인 思想의 混亂을 窮蹙하는 論議가 아니면 웃지 이를 整頓하리오. [...]

文家의 程度로는 論文이 더욱 初學에 攻究할바이오, 時代의 必要로는 論文이 가장 現今의 適合한바이라, 내 오늘날 諸君을 爲하여 文章을 講함에 먼저 論文으로 써 嚆矢를 삼음이 實로 한새 漫然한 意思가 아니로라.³⁰⁾

이 글은 정인보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고서 학생들에게 글 짓는 법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잡지에 수록한 것이다. 그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글쓰기 양식이 바로 ‘논문(論文)’이다. 그에 따르면 논문은 사물의 본말을 궁구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로, 그 글쓰기의 핵심은 논지의 명료함(明白)과 막힘없는 논지 전개(暢達)에 있다. 이러한 글은 미(美)를 중시하는 예술적 차원에서 비추어보면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으나, 시대적 차원에서는 그 효용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았다. 그는 사상적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지닌 주체를 확립하는 것을 당대의 주요 과제라고 여겼는데, 논문은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글쓰기이기에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인식한 당시의 사상적 혼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30) 정인보, 「文章講話(上篇)」, 『廢墟以後』 1호(1924. 2), 141쪽(『廢墟(全)』, 원문사, 1976, 수록본).

말하며, 어떠한 주체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는가?

朝鮮은 지금 重大한 時機에 있지 아니한가. 人物 하나라도 내어 세울 때가 아니며, 團體 하나라도 힘 있게 되도록 後援해야 할 때가 아닌가? [...] 그런데 現在의 우리는 外人에 對하여서는 思想이든지 事業이든지 阿諛에 가까운 盲目的 尊敬과 服從을 가지면서, 自國人の 思想이나 事業에 對하여는 다만 冷然 不顧할 뿐 아니라 도리어 積極的으로 吹毛覓疵하여 기어코 이것을 誹謗하고 埋葬하고야 말려 하니 實로 本末을 顛倒한 일ियो 衰運의 朝鮮에서밖에 볼 수 없는 現象이다.³¹⁾

이 글은 1926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문으로, 여기에서 정인보는 당시 사회 분위기가 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자국에 대한 적극적인 비하가 만연하다고 보고, 이를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정인보가 내건 가치가 ‘조선을 찾자’는 것이었다. “異國의 偉人을 崇揚할 줄 알되 自家의 偉人을 모르는”³²⁾ 시대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오늘날의 우리는 “突然히 생긴 우리가 아니라 心裏의 潛在한 뿌리가 오래 두고 번어내린 바”³³⁾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역사를 단절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연구하고 저술했던 분야는 전통적인 문사가 문학·역사·철학을 아울렀듯이 세 영역에 걸쳐 있다. 주요 글로는 문학 영역에서는 「조선문학원류초본」, 철학 영역에서는 「양명학연론」, 역사 영역에서는 「오천년간 조선의 얼」 등이 있다. 각각은 영역에 따라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다르지만, 이 모두를 관통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근대적 학술 논문 쓰기가 전통적인 학문과 문장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장강화」에서 그가 논문 쓰기의 첫 번째 항목으로 인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31) 정인보, 「永遠의 內訌」, 《동아일보》, 1924년 2월 13일자; 『전집』 2, 287쪽.

32) 정인보, 「民族的 羞恥」, 《동아일보》, 1931년 5월 14일자; 『전집』 2, 296쪽.

33) 정인보, 「조선문학원류초본」, 『전집』 1, 261쪽.

글은 그 마음의 밝음을 쓰는 것이라, 밝음은 비름에 있나니 直道에 어김이 있을때, 말이 徑路를 찾지못함을 보라, [...] 었던 文字든지 人格을 本位로 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論文과 人格과는 더욱 絶重한 關係가 있나니, 或 말하기를 科學的 論文에 이르러는 이範圍로써 制限할바는 아니라하나, 他見을 辨할때, 爭心이 읍서야 할지며, 自己의 名譽를 爲 하여 誤謬를 掩飾함이 업서야 할지라, 平生에 직히든 學說, 또는 그 學說로因하야 自己의 地位가 一世에 巍然하든 터이라도, 眞理의 優勝함이 여긔 있지 아니함을 알재 一切로 棄斥함을 脫履의갓치 하는 勇斷이 잇서야 할지니, 이는 다 良知를 속이지 아니하는 修養에서 남이라.³⁴⁾

이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논문은 객관성과 과학성이 중요하지, 글쓴이의 인격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도 한다. 실상 이러한 생각에 오늘날의 우리는 더 익숙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인보는 논문이야말로 인격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진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 논문이기에 개인적인 명에 때문에 자신의 오류를 숨기지 않고 평생 지켜온 견해라도 잘못된 줄 알면 버릴 줄 아는 용기 있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을 갖추는 것이 글쓰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품은 양지(良知), 즉 타고난 앎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의 수양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의 글쓰기론은 대단히 윤리적이며, 동양의 전통적인 수양론, 특히 양명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수양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한문 문언문의 새로운 길 모색과 역사 기록

정인보는 1926년 시조를 본격적으로 창작하면서부터 1937년 연희전문 학교를 사퇴하기에 이르기까지 신문잡지 매체를 통해 한글 글쓰기를 활발하게 시도하였다. 그러면서도 그가 한문 글쓰기를 중단한 적은 없다. 실상 그는 당대 지식인 사회에서 한학자로서 저명이 높았고³⁵⁾,

34) 정인보, 앞의 글(1924. 2), 143쪽.

35) 이광수는 중국에서 정인보를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정인보에 대해 ‘유명한 젊은 한학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이광수, 「나의 告白, 나라를 읽은 사람들」, 1948(민영규, 『강화학과 최후의 풍경』, 도서출판 우반, 1994, 64쪽 참조). 정인보가 중국을 오갔을 때는 1911-1913년 무렵이므로 정인보의 나이 19-21세 되었을 때이다. 비록 젊은 나이이지만, 조선조에서 정승을 다수 배출한 명문가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익혀왔고, 18세에 이견방을 스승으로 모시며 조선조 양명학의 계보를 잇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에 20세 무렵에 이미 그는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젊은 한학자로 잘 알려져

스스로도 전통적인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줄곧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한문 글쓰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을까? 전통 한학에 익숙했기에 그저 습관적으로 한문 글쓰기를 지속했던 것일까? 그렇다고 치부해버리기에 그의 한문 글쓰기에는 현재적인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다. 더욱이 그가 한문 글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때는 일제의 탄압이 혹독해지던 시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7년에 ‘수양동우회’ 사건 등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는 연희전문 교수직을 그만두고³⁶⁾ 광복 때까지 오랜 칩거 생활에 들어갔는데, 이때 그는 주로 묘비문과 제문, 한시 등을 지으면서 지냈다. 즉, 근대 매체를 통한 저술 활동, 강의와 학술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전통적인 선비의 삶의 방식대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1) 한문 문언문의 새로운 길 모색

신문사와 학교 일을 그만둔 뒤로 칩거하던 시기에 그는 예전에 배운 책들을 보며 고문(古文)에 대한 애정이 더욱 두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³⁷⁾ 그리고 그의 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옛 경서를 읽고 한문 문언문 쓰기를 여전히 지속했던 전통 지식인들과의 교류였다.

대개 문헌(文獻)이란, 서적에 실어 과거를 증험케 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유로(遺老)들이 능히 진술(陳述)함을 헌(獻)이라 한다. 군은 대개 노성(魯城) 온 고을의 헌(獻)이요, 다만 윤씨(尹氏)네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개 세상이 뒤집히자, 저 가련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師友中 同氣相求하는 자를 그리워하며, 살아남고 죽는 슬픔을 서러워한다. [...] 문장(文章)은 세상에서 험뜯고 바웃는 바요, 예교(禮教)며 전헌(典獻)은 요즈음 사람이 귀한 줄을 몰라서, 우환(迂闊)하고 가난하고 괴로우며 쓸데없고도 지켜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리므로 우리들이 서로 얼림은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³⁸⁾

있었던 듯하다. 한문 문장가로 명망이 있었음은 그에게 序跋文이나 碑文을 요구한 사람들이 줄곧 많았다는 사실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36) 정양완, 「담원 정인보 선생 연보」, 『애산학보』 제39집(2013), 29쪽.

37) “요즈음 병으로 일도 그만두고부터는 집에만 있어 바깥일이 없으므로 예전에 배운 책들을 빼여 보니 거기[고문] 향한 정이 이에 더욱 두터워지오.” 정인보, 「사침 성환혁에게 주는 글을 따지는 편지(與成士瞻煥赫論文書)」, 『담원문록』 중(태학사, 2006), 365쪽.

이 글은 1945년 광복되기 직전, 전북 익산에 거주할 때 충남 논산의 벗 윤기중(尹器重)에게 쓴 편지이다. 이 글에는 옛 학문을 따르던 전통 지식인들이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현실이 서글프게 그려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군자의 도(道)를 추구했던 옛 학문은 이제 소수만이 향유하는 것으로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조롱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인보가 생각하기에 전통적인 학문은 계속 지켜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었고, 나이 든 유자(儒者)들은 그 자체가 역사를 말해주는 문헌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만 이끌려 옛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더욱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당시 정인보와 교류했던 전통 지식인들은 가문이나 지역의 범위를 초월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학문이 깊고 덕이 높다고 알려진 선비는 궁금해하며 찾아보거나 편지를 주고받아 벗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정인보는 이를 “옛날의 바른 道이며 아름다운 일”³⁹⁾이라고 여기고, ‘동기상구(同氣相求)’라고 표현했다. 현실에서 전통적인 학문과 전통 지식인의 역할은 주변화되어갔지만, 이들은 교류를 통해 때로는 슬픔을 위로하며 옛 학문을 이어갔던 것이다.

정인보의 한문 서간문이나 한시 등은 대다수가 이러한 교류 활동의 산물이다. 특히 이들과 주고받은 서간문에서는 문장에 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근대 이전에 편지는 안부 인사의 전달을 넘어 선비들 사이에서 학문과 문장을 논하는 주된 수단이었고, 나아가 편지 자체가 문집에 수록되는 작품이었다. 이는 정인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인보가 서간문을 통해 나누었던 주요 주제의 하나가 바로 고문(古文)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고문을 읽고 쓸 수 있는 이들은 소수였고, 시대적 영향력도 미미했다. 그럼에도 정인보에게 고문은 시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죽은 글이 아니라 여전히 배울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것이었다.

38) 정인보, 「중리신거기(中里新居記)」,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299-300쪽; 『전집』 6, 384쪽.

39) 정인보, 「김문옥에게 답하다(答金文錫書)」,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389쪽; 『전집』 6, 440쪽.

글을 따지기 잘하기로는 韓退之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退之는 “氣가 盛하면 말의 長短과 소리의 높낮이가 다 맞았다” 하였으니, 이는 지극 精當한 名言입니다. 普는 오히려 이 論說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氣盛 두 글자를 어찌 쉽사리 말할 수 있었습니까? 차라리 먼저 事理와 語勢를 따라 다른 결점이 없이 진실로 이치로 알맞고, 어세가 합당할 것 같으면 氣는 이를 따르는 것입니다. [...] 이런 道는 衰하여 세속은 아름다움만 이어가기 서로 좋아한 지가 오래입니다. 普 또한 감히 스스로가 세속과 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오직 古文 한 가지만은 겨우 실낱같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을 둘러보아야 同好者는 역시 몇이 안 됩니다. 당신같이 재주가 뛰어나기 남보다 百+배나 되니 진실로 우리 道가 당신 덕에 빛날 것입니다.⁴⁰⁾

이 글은 정인보가 김문옥에게 보낸 편지로, 여기에서 보듯이 정인보는 달라진 시대 풍조 속에서도 고문 하나만은 이어가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김문옥과 같이 재주가 뛰어난 이가 고문에 힘쓰는 것을 보면 우리 道(道)가 빛날 수 있겠다며 기뻐했다.⁴¹⁾ 여기서 그가 말하는 ‘우리 道(道)란 넓게는 전통 학문인 도학(道學)을, 좁게는 기(氣)의 성(盛)함과 이치의 합당함 등을 논하는 전통적인 한문 문언문의 문장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선비들에게 이러한 문장론은 道(道)를 추구하는 학문 담론 가운데 중요한 일부였다. 정인보는 바로 이러한 문장론이 고문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더욱이 눈여겨볼 것은 정인보가 당시 문단이 미(美)만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파악하고, 이를 과거의 문장과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예술과 학문이 분리되고, 순수 예술의 가치를 중시하며 예술 지상주의까지 출현했던 것이 근대 문예의 한 흐름이었다. 하지만 정인보가 견지했던 전통 유자의 문장관에서 보자면 道(道)를 담아내고 있는지, 기(氣)가 어떠한지 등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美)만 논하는 것은 협소한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비추어졌던 듯하다.

40) 정인보, 위의 글, 387-388쪽.

41) 제자인 윤석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道에 대해서는 그대에게 기대가 가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인보,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答尹士建錫五)」 (1),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392쪽; 『전집』 6, 447쪽.

42) 김진균은 「김문옥에게 답하다(答金文錫書)」에서 정인보가 문자행위와 우리 道(吾道)를 일치시키는 인식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정인보에게 한문과 유교는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둘 다 일신해서 계승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파악한 바 있다(김진균, 「정인보 조선학의 한학적 기반」, 『한국실학연구』 제25집, 2013, 475-477쪽). 이 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인보는 고문이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를 중시했을 뿐이지, 고문의 법도를 그대로 좇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가 고문에 관해 전통 지식인들과 토론한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정말로 선생은 고문에 독실하군요. 지금 사람으로 선생 같은 이가 몇이나 되겠소? 그러나 선생은 글짓기를 너무나 조심스럽고도 삼가서 치닫는 맛이 적소. [...] 풀가도 생각해보니 선생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있으니, 오직 지나치게 고문에 독실한 데 있는 것이니 歸有光 震川·方苞 望溪·汪琬 堯峯·姚鼐 姬傳의 말이라면 최고로 알기 때문이오. [...] 한 치씩 그대로 밟아가고, 한 자씩 고대로 닦아가기에 이르러 감히 제 뜻대로는 조금도 못 가는 것이오. [...] 그러기에 선생이 글로써 글을 지으려 들지 말고, 반드시 그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은 뒤에야 글을 짓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고문을 잘할까?” 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해야 하오.⁴³⁾

이 글은 정인보가 성환혁의 편지글을 보고 글 쓰는 법에 대해 조언을 해준 편지이다. 성환혁은 경남 진주에 사는 하겸진 선생의 제자로 고문을 힘써 연마하는 젊은이였다. 정인보는 그가 전대(前代) 고문가들을 너무 추종하여 고문의 법도를 충실하게 따르려고 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정인보가 생각하기에는 글이란 절실하게 드러내고 싶은 뜻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가 전대 고문가들의 글을 좇으려 하다 보니 자신의 뜻을 과감히 펼치지 못하는 글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이가 정인보는 후대의 문장이 전대의 것보다 더 낫다며, 전통 지식인들이 전범으로 우러르는 고문가들의 권위를 해체하고 자신의 글을 쓰도록 권고하였다. 다음은 그가 아꼈던 제자 윤석오에게 쓴 편지인데, 정인보가 나아가고자 했던 글쓰기의 방향이 옛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과는 달랐음을 잘 보여준다.

옛사람이 글을 지음에 독서의 범위가 좁았으나, 이제 자네의 책꽂이에 쌓인 것 중에는, 前輩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도 있소만, 밀천 삼을 짓은 독서 범위의 넓지 않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문장은 뒤에 태어난 사람이 도리어 낫소. 章太炎 같은 閎博典雅함을 어찌 方苞와 姚鼐가 능히 미칠 바이겠소?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오. 清朝의 樸學이 十三經 二十子에 融和되어 터럭끝 만큼도 허트로

43) 정인보, 앞의 글(2006), 365-368쪽; 『전집』 6, 76쪽.

스친 곳이 없는데다가 章氏가 마침 그 끝에 태어나, 左右로 마음껏 토론하고, 그 집성을 혼자서 총괄하였기 때문이오. 하필 章氏만이 그렇겠소? 자네나 나라고 유독 스스로 힘써서 안 될 리 있겠소? 44)

이 글에서 정인보는 옛사람들보다 후대 사람들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축적된 학문 성과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폭넓게 총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옛 문장보다 후대의 문장이 낫다는 관념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익숙지 않은 것이다. 이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늘 과거에 있었고, 후대로 갈수록 타락해간다고 보는 관념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문장론에서 대개 관건은 옛 문장의 경지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 다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실학과 문인들이 ‘지금은 후대의 과거이므로 고금이 마찬가지’라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정인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과거보다는 후대의 문장이 더 낫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45)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사례로 당시 중국 국학의 대가였던 장태염(章太炎)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46) 정인보는 고문의 정통을 잇고 있다는 요네·방포와 같은 동성파(桐城派)보다도 현재의 장태염의 글이 더 뛰어나다고 보았다. 장태염은 청조 고증학은 물론 전대의 학문을 융화, 총괄하여 자신의 뜻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인보는 제자 윤석오에게 장태염의 글을 수십 번씩 읽으라고까지 권고했다. 47)

44) 정인보, 「윤사건 석오에게 답하다(答尹士建錫五)」 (2),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395-397쪽; 『전집』 6, 450쪽.

45) 이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근대의 진화론의 영향과도 어느 정도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6) 민영규는 정인보의 서재 머리말에 황종희, 장학성, 장태염의 문집이 언제나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민영규, 앞의 책, 66-67쪽). 장태염은 정인보의 학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둘 다 근대 전환기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 인 국학자라는 점에서 이후 이들에 대한 자세한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47) 김진균은 장태염과 정인보가 전통 지식인들에게 고문을 기반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둘 다 동아시아 중세 보편주의 문자행위인 한문학이 청산되는 시대에 중세적 문자행위를 지속하며 중세적 이념을 쇠신하려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진균, 앞의 논문, 481-485쪽). 그러나 둘 다 당시까지 주류를 형성해온 동성과 중심의 고문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새로운 고문 쓰기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단지 고문을 지속했다고만 하는 것은 범범한 면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정인보는 옛 고문의 모방 풍조는 철저히 경계했고, 앞 시대의 학문적 성과를 총괄하여 이 시대에 한발 나아가는 자신의 글을 쓰고자 했다. 즉, 그는 한문 문언문의 가치를 인정하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면은 고문의 전범을 본받는 데 치중했던 전통 지식인들과 달랐던 것은 물론이요, 한문 문언문의 가치를 부정하며 근대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지식인들과도 달랐다. 예컨대 최초의 『한문학사』를 쓴 김태준은 정인보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고⁴⁸⁾, 이육사는 근 50년간의 중국 학술사를 정리하면서 ‘고문’이 시대적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⁴⁹⁾ 또한 산문 작가로 저명했던 이태준은 『문장강화』에서 과거의 문장작법은 제 글을 쓰기보다는 전고(典故)를 중시하며 모방하는 데 치중했다며 이를 전면 부정했다.⁵⁰⁾ 이들에게 한문 문언문은 배울 가치가 없거나 이미 죽어버린 전통이 된 글쓰기였다. 반면 정인보는 고문의 가치를 인정했기에 고문을 연마하는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진지한 논쟁을 거듭하며 한문 문언문의 변화를 꾀했다. 즉, 전통의 부정도 전통의 고수도 아닌 전통의 비판적 계승을 통해 현실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인보가 추구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비지문(碑誌文)을 통한 역사 연구와 역사 기록

정인보의 한문 문언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지문(碑誌文)이다. 정인보의 한문 문집인 『담원문록』에는 260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한시가 108편이고 산문 중에는 비지문이 80여 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그가 한학자로서 저명했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글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비지문을 남긴 데에는 그가 비지문에 부여하는 남다른 의미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지문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행적을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도록

48) 김태준, 「鄭寅普論」(1)-(4), 《朝鮮中央日報》1936년 5월 15-19일자; 최재목, 「金台俊의 「鄭寅普論」을 통해 본 解放前 爲堂 鄭寅普에 대한 評價」, 『양명학』 제20호(2008).

49) 이육사, 「중국문학오십년사」, 『문장』 제3권 1호(1941. 1), 134-140쪽; 이육사, 「중국문학오십년사」, 『문장』 제3권 4호(1941. 4), 281-287쪽.

50) 이태준, 『문장강화』(창비, 2005), 23-30쪽.

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이것은 고대 제왕의 공덕을 금속 그릇에 새긴 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역사가 아주 오래된 글 양식이다. 정인보가 비지문을 쓴 기본적인 이유도 오랜 전통 문화를 이어 죽은 이의 공적을 기리고 산 자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비지문 중에는 그 이상을 넘어 역사 연구와 역사 기록의 성격이 두드러진 글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⁵¹⁾

병자(1936)에 공의 6세손 正重이 공의 遺事를 모아 寅普에게 부탁하여, 公州 曲火川面 安永里에 합장한 무덤에 묘표를 써달라 하였다. 寅普가 받아서 여러 차례 뒤적여보고, 한편으로 공사기록을 참조해보니, 공이 비록 조정에 벼슬한 기한은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젊어 세상을 떴으나, 일생이 구차스럽지 않고, 우뚝하여 옛 사대부의 물러서고 벼슬할 때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제 말세사람으로 어찌 능히 미칠 바이겠는가? 그런대로 그 대충을 글로 엮어 (尹)正重에게 보내니, 그 墓表에 그칠 뿐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되기 바라는 바이다.⁵²⁾

이 글은 정인보가 지인 윤정중의 부탁을 받고 쓴 묘비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에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문헌 조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단지 저명한 문장가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인보 자신도 이 비지문이 역사 연구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지인 윤기중(尹器重)이 9대조인 윤손(尹損)에 대한 비지문을 부탁하여 쓴 「봉사 윤공 묘표(奉事尹公墓表)」⁵³⁾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윤손의 행적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자, 정인보는 고궁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살펴보며 윤손의 상소 내용과 당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지문에서 밝히고 이 일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덧붙임으로 써 비지문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비지문은 단지 한 사람의 묘표에 쓰이는

51)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曾鞏(1019-1083)은 碑文을 역사 기록과 비교하면서, 역사는 선악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바가 없지만, 銘은 옛사람의 훌륭한 점을 후세에 알리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악한 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曾鞏, 「寄歐陽舍人書; 김영봉, 「爲堂 鄭寅普의 墓道文字에 나타난 시대의식」, 『동방학지』 제141권, 2008, 58쪽 참조). 이러한 증공의 관점에 비추어본다면 정인보의 비지문도 인물의 훌륭한 점을 위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역사 기록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헌을 조사하는 태도 및 비지문의 효용에 대한 관점 등에서 역사 연구 및 역사 기록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52) 정인보, 「응교 윤공 묘표(應教尹公墓表)」,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321쪽.

53) 정인보, 「봉사 윤공 묘표(奉事尹公墓表)」,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323쪽.

차원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통해 역사를 되돌아 보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인보는 역사 연구자의 태도로 비지문을 쓰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의 비지문 중에는 일종의 역사 저술의 성격이 두드러진 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인보의 비지문 쓰기는 아름다운 행적을 보여주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찾아 글로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윤광우(尹光宇, 1753-1814)에 대해 쓴 다음 비지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푸는 철든 뒤로부터 지난날의 선배의 고사를 살펴 따지기를 좋아하였다. 그 깊은 학문과 남다른 행실이 있고도 묻혀 없어지고 흐려져서 알려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남몰래 마음이 슬퍼져, 비록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더러 찾아가 채집하여 그 끼친 것을 적어두었다. [...] 푸는 선비가 前人이 하던 일이나 뜻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은 自謙일 뿐, 실로 후세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義理는 후시라도 들었다면 그것을 인멸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⁵⁴⁾

정인보가 윤광우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정약용의 문집을 간행할 때 그의 글에서 윤광우에 관한 일화가 언급된 것을 보고 나서였다. 사소한 내용이었지만 그 사람의 맑은 인품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윤씨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다가 지인 윤여련을 만나 비로소 윤광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 있었음을 알게 된 이상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선비가 학문과 행실을 닦는 것이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자 해서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를 기록해두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의 아름다운 행적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그저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가 「단인 김씨 묘표」⁵⁵⁾, 「박유인 기열비」⁵⁶⁾ 등 평범한 여성들에 대한 비지문을 다수 남긴 것도 역사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맑고 굳센 마음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집안을 잘 지켰던 이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길 의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54) 정인보, 「학생 윤공 묘표(學生尹公墓表)」,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331-334쪽; 『전집』 6, 401쪽.

55) 정인보, 「단인 김씨 묘표(端人金氏墓表)」,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98-100쪽.

56) 정인보, 「박유인 기열비(朴儒人 紀烈碑)」, 『담원문록』 하(태학사, 2006), 128-131쪽.

그는 신문·잡지를 통해 한글 글쓰기를 활발하게 하던 시기에 비지문이 나 전기문은 한문이 아닌 순한글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⁵⁷⁾ 존명주의·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조선인의 다수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그는 한문으로 비지문 쓰는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이는 비지문이 기본적으로 산 자가 죽은 자를 애도하고 후손이 조상을 기리는 전통적 의례와 긴밀하게 결합된 글 양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정인보가 한글 비지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한문 비지문 쓰기를 계속 이어갔던 것은 전통 문화의 지속이 더 소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그의 비지문의 상당수가 공식적인 사회 활동을 중단한 1937년에서 1945년 사이에 활발히 창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는 비지문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 옛 문헌을 조사하며 한 인물의 행적과 그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은 그것이 한 인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그는 공식적인 국학 활동과 한글 글쓰기와 불가능한 시점에서 전통적 선비의 삶의 방식대로 전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국학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분위기는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어 글쓰기가 강요되거나 스스로 일본어 글쓰기를 수행하는 지식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그의 비지문 쓰기는 식민 제국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서구 우월주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민족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57) “무릇 碑文이나 傳記나를 勿論하고 그것을 만드는 데 두 가지 絶對로 必要한 條件이 있으니, 하나는 尊明·事大思想에서의 解放이요, 또 하나는 難解한 漢文에서의 解放이다. 될 수만 있으면 現在 各地에 있는 古碑는 다 땅속에 깊이깊이 묻어버리고 自由로운 民族主義의 意識에서 純純한 朝鮮文으로 새로운 碑文을 써서 後孫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公의 傳記를 純朝鮮文으로 써야 할 것은 勿論이다.” 정인보, 「충무공위도 퇴환(忠武公位土推還)」, 《동아일보》, 1931년 6월 15일자; 『전집』 2, 제5편, 304쪽.

IV. 맺음말

이상으로 근대 전환기에 전통 지식인이자 국학자로서 전통 한문 문언문과 한글 글쓰기를 병행했던 정인보의 언어 인식과 글쓰기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인보는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의 근본 바탕이고 민족 고유의 것이라는 음성 언어 중심의 언어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음성 언어를 표기한 한글을 참된 문자로 보고, 한자는 중국인의 음성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일부 신지식인들처럼 한자를 완전히 타자화하지도 않고, 한자로 씌어진 유산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는 한자 생활을 영위했기에 과거의 한문학도 국문학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우리의 한자 문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상고시대에 이미 어문일치를 이룬 우리의 고유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오랜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했다. 즉, 정인보는 전통 선비의 정체성을 지니고 전통을 이어가고자 했던 인물이지만, 언어문자에 대한 인식 면에서는 근대 이전의 선비와 달랐고, 민족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추구하는 국학자의 관점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의 한글 글쓰기와 한문 글쓰기를 관통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그가 시도했던 시조·가사나 한글 기행문 등은 모두 전통적인 문예 양식의 재생을 통해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시대적 차원에서 효용 가치가 높다며 강조하였던 논문 쓰기도 전통 학문의 문장론 및 수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그는 한문 문언문도 지속적으로 창작하였는데, 한학적 소양이 있었던 김태준·이육사·이태준 등이 한문 문언문을 시대적 효용을 잃은 글쓰기로 본 반면 그는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단 옛 문장의 법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시대정신을 담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한문 문언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지문은 망자에 대한 애도의 차원을 넘어 역사 기록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지문이 일제의 압박이 심해진 1930년대 후반에 활발하게 창작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일제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전통 문화를 지속하고 국학 활동을 이어간 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인보의 글쓰기는 한마디로 전통의 계승과 혁신으로 이루어졌던 바, 근대적인 한글 글쓰기는 전통적인 글 양식이나 문장론의 참조를 통해 시도하였고, 전통 한문 문인문은 시대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였다. 비록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후대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근대전환기에 민족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살린 글쓰기의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김태준, 「鄭寅普論」. 《朝鮮中央日報》, 1936년 5월 15-19일자.
- 이육사, 「中國文學五十年史」(一·二). 『文章』 제3권 1호, 1941. 1, 134-140쪽.
- _____, 「中國文學五十年史」(三·四). 『文章』 제3권 4호, 1941. 4, 281-287쪽.
- 이태준, 『문장강화』. 창비, 2005.
- 정인보, 「文章講話」 上篇. 『廢墟以後』 1호 부록, 1924. 2, 139-151쪽(『廢墟(全)』, 원문사, 1976, 수록분).
- _____,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7.
- _____, 『담원 정인보전집』(1-6).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 _____, 著, 정양완 역, 『담원문록』(상·중·하). 태학사, 2006.
- 조운제, 「조선문학과 한문과의 관계」(1)-(13). 《동아일보》, 1929년 2월 10-23일자.
- 최남선, 『육당 최남선전집』 5. 동방문화사, 2008.
- 황현 저,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상. 문학과지성사, 2005.

2. 논저

- 김영봉, 「爲堂 鄭寅普의 墓道文字에 나타난 시대의식」. 『동방학지』 제141권, 2008, 51-81쪽.
- 김진균, 「정인보 조선학의 한학적 기반」. 『한국실학연구』 제25집, 2013, 463-496쪽.
- _____, 「「조선문학원류초본(朝鮮文學源流草本)」을 통해 본 정인보의 ‘조선문학’ 구상」. 『반교어문연구』 제39집, 2015, 35-62쪽.
- 민영규, 『강화학과 최후의 풍경』. 도서출판 우반, 1994.
- 濮之珍 저, 김현철 등 역, 『중국언어학사』. 신아사, 1997.
- 정양완, 「담원 정인보 선생 연보」. 『애산학보』 제39집, 2013, 29쪽.
- 陳必祥 저,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 최재목, 「金台俊의 「鄭寅普論」을 통해 본 解放前 爲堂 鄭寅普에 대한 評價」. 『양명학』 제20집, 한국양명학회, 2008.
-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국 문 요 약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전환기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언어 담론과 글쓰기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 때이다. 계층·세계관 등에 따라 글 쓰는 주체들이 선택한 문자와 문체가 달랐고, 동일한 주체의 경우에도 시기·상황·목적 등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쓰기가 어떻게 분할·배치되고, 혼종·착종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탐색의 일환으로서 일제강점기에 전통 지식인이자 국학자로서 전통 한문 문언문과 한글 글쓰기를 병행한 정인보의 언어 인식과 글쓰기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언어문자 면에서 보면, 정인보는 음성 언어 중심의 언어관에 따라 우리의 음성 언어를 표기한 한글을 참된 문자로 보고, 한자는 중국인의 음성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과거 한자 유산을 배제하지 않고 과거의 한문학도 국문학에 포함된다고 여겼으며, 우리만의 한자 문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상고시대에 이미 어문일치를 이룬 우리의 고유문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오랜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했다. 즉, 정인보는 전통 선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 계승을 추구했지만, 언어문자 면에서는 근대 이전의 유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족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추구했던 국학자의 관점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의 한글 글쓰기와 한문 글쓰기를 관통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민족 언어의 본질이 한글 글쓰기에 있다고 여기며 신문·잡지를 통해 문예·학술 방면의 한글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문예 양식의 재생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전통 학문의 문장론 및 수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그는 한문 문언문을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전통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한문 문언문도 지속적으로 창작하였다. 단 고문의 법도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시대정신을 담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그는 비지문을 많이 남겼는데, 그의 비지문은 망자에 대한 애도의 차원을 넘어 역사 연구와 역사 기록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지문이 일제의 압박이 심해진 1930년대 후반에 활발하게 창작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일제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전통 문화를 지속하고 국학 활동을 이어간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인보의 글쓰기는 전통의 계승과 혁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의 이중 언어 글쓰기 방식은 후대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근대전환기에 민족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살린 글쓰기의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5. 6. 23.

심사일 2015. 8. 6.

게재 확정일 2015. 9. 3.

주제어(keyword) 정인보(Jeong-Inbo), 한글 글쓰기(writing in hangul), 한문 문언문(writing in classical chinese), 이중 언어(bilingual writing), 근대전환기(modern transition period), 전통 지식인(traditional intellectual)

The Traditional Intellectual's Writing in Two Kinds of Languag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Writing in Chinese Character and Writing in Hangul in the Jeong Inbo's Writing

Yeo, Hee-jeong

Never before in the last decades of Joseon Korea and Japanese colonial era had it showed that the aspects of discourse of language and writing were terribly complicated. A written language and writing style depended on the class and values. In case of same person, it also depended on the times, situation, and purpose. So we need to examine how a written language and writing style were selected, how

a writing style was intermingle with another writing style in order that we have much of an eye for those times.

This paper considered Jeong-Inbo's perception of language and writing style as part of a research of that kind. Jeong Inbo, a representative man of the classical scholars in 1930's, wrote in Hangul and in chinese character. First, Jeong-Inbo regarded Hangul as true character because he thought that our spoken language could be written in Hangul. Second, He thought that chinese characters were based on Chinese spoken language. But He didn't exclude our cultural heritag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He regarded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as our literature. Moreover he estimated that we had had our own letters. Like this, he put emphasis on national identity and uniqueness.

It is the same in writing in Hangul and writing in classical chinese. The former had be done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 The latter had be done by changing to those times and by trying finding a new route.

In summary Jeong-Inbo's writing could be done by a succession and innovation of tradition. Although his bilingual writing did not last to posterity, his attempt of writing has a significance in national identity and uniqueness in modern transition period.